

2022년 가을학기
전시간 훈련을 위한 메시지 개요

전체 주제:

예수님 안에 있는 실재대로 그리스도를 배움으로
그리스도의 몸의 실재 안에서 생활함

메시지 8

그리스도 예수님의 속부분들 안에서 생활함으로
그리스도의 몸의 실재 안에서 생활함

(2)

몸을 의식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님의 속부분들 안에서 교회 생활을 실행함으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생활함

성경: 고전 12:26-27, 롬 12:4-5, 15, 몬 7, 12-16, 20

- I.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의 속부분들 안에서 더 살수록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의식이 더 커지고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우리의 느낌도 더 강해질 것이다 — 고전 12:26-27, 롬 12:15.
- A. 몸의 생활을 하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의식해야 한다 — 롬 12:4-5, 15.
 - B. 그리스도의 몸의 의식은 우리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감각이다 — 골 3:4, 15, 롬 8:2, 6, 10-11, 12:4-5.
 - 1. 이 감각은 우리의 영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생명에서 비롯된다 — 롬 8:2, 9-10.
 - 2. 우리가 이 감각을 훈련한다면 이 감각은 우리가 몸과 관련된 일들을 의식하게 할 것이고 이 감각은 몸의 의식이 될 것이다 — 롬 12:15, 고후 11:28-29.
 - 3. 우리가 몸의 감각, 몸의 의식을 갖는다면 다른 이들이 고난을 당하거나 축복을 받을 때 우리는 그들과 하나 되어 동일하게 고통이나 축복을 느낄 것이다 — 고전 12:26-27.
 - C. 그리스도의 몸의 의식은 그리스도와와의 유기적인 연결, 그리스도를 누림, 그리스도 예수님의 속부분들 안에서 생활함에서 온다 — 롬 12:4-5, 골 2:16-19, 빌 1:8.
 - 1. 우리는 그리스도와와의 유기적인 연결 안에서 생활함으로 몸의 의식을 배양할 수 있다 — 롬 12:4-5.
 - a. 로마서 12장은 몸에 대해서 말할 때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결할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모든 지체들과 연결하는 생명의 유기적인 연결이라는 관점에서 말한다.
 - b.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서 그분과 유기적인 연결을 가지고 있다. 이 연결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고 몸의 모든 지체들과 하나 되게 한다 — 롬 12:4-5.
 - 2. 우리는 몸의 머리이신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를 누림으로 몸의 의식을 배양할 수 있다 — 골 2:16-19.
 - a.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을 포함하신 보배로운 그리스도는 몸의 머리이시다 — 고전 10:3-4, 요 20:22, 골 1:18, 2:19.
 - b. 우리가 누리는 그리스도는 머리이시고 우리가 몸을 의식하게 하신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분을 머리로 붙든 결과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의식을 갖는 것이다 — 골 2:16-19.
 - 3.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속부분들 안에서 생활함으로 몸의 의식을 배양할 수 있다 — 빌 1:8, 골 3:10-12, 15.
- II. 바울이 빌레몬에게 쓴 서신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속부분들 안에서 사는 교회 생활의 그림을 갖는다 — 몬 7, 10-16, 20.
- A. 속부분들은 내적인 애정과 부드러움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의미한다 — 빌 1:8, 2:1, 골 3:12.

- B.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낼 때, 바울의 내적인 애정과 긍휼이 오네시모와 함께 갔다 — 몬 12.
- C. “그렇습니다, 형제님, 내가 주님 안에서 그대에게서 유익을 얻도록 해 주기를 바라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 속 부분들이 상쾌해지도록 해 주기를 바랍니다.” — 몬 20.
1. 빌레몬서 20 절에서 그리스도는 믿는 이들의 속부분을 상쾌하게 하는 영역과 요소로 계시되신다.
 2. ‘상쾌하게 하다’라는 말은 ‘위로를 받게 하다’, ‘기쁘게 하다’를 의미한다.
 3. 빌레몬이 성도들의 속부분들을 상쾌하게 했으므로(몬 7), 이제 바울은 그에게 주님 안에서 자신에게도 동일하게 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4. 바울이 말한 주님 안에서의 유익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속부분들이 상쾌하게 되는 것을 가리킨다.
 - a. 바울의 속부분들이 상쾌하게 되는 것은 빌레몬 자신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주님 안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었다.
 - b. 바울이 빌레몬에게서 구했던 유익 — 자신의 속부분들이 상쾌해 지는 것 — 은 주님에게서 나온다.
 - c. 우리의 속부분들이 동료 믿는 이들에 의해서 상쾌하게 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다. 이것은 믿는 이들의 속부분들을 상쾌하게 하는 영역과 요소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는 것이다.
 5. 그리스도 예수님의 속부분들 안에서 살고 상쾌하게 됨으로 — 우리의 속부분들이 그리스도 안의 다른 이들에 의해 상쾌하게 되고, 우리를 통해 믿는 이들의 속부분들이 상쾌하게 됨으로 — 우리는 달콤하고 즐거운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다.

III. 빌레몬서는 골로새서 4 장의 연장으로 여겨져야 하며, 한 새사람 안에서 어떻게 모든 사회적인 계급이 제쳐져야 하는지에 대한 묘사로 여겨져야 한다 — 몬 1-2, 10-19.

- A. 믿는 이들은 그들의 생명이신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로 조성되었기 때문에 믿는 이들 가운데 사회적인 계급과 신분의 차이는 무효화되었다 — 골 3:4.
- B. 빌레몬서에서 바울은 노예들과 주인들이 그리스도로 재조성된 것에 대한 그림인 교회들을 제시한다. 그 결과 그들은 모두 새사람의 일부이고 새 사람 안에서 동일한 신분을 갖는다 — 골 3:10-11.
- C. 하나님의 경륜을 실행할 때 모든 사회적 계급과 인종과 나라의 차이가 삼켜지는 것이 중요하다 — 골 3:10-11.
 1. 새사람 안에서 피부색에 근거한 차이는 무효화되었다. 바울은 이것을 강하게 가르쳤고 우리도 이것을 진리를 온전히 아는 것의 한 부분으로 여겨야 한다 — 딤후 2:4, 딤후 2:25, 딤후 1:1.
 2. 새사람 안에서 믿는 이들이 동일한 신분을 가지고 있음을 본다면 우리 가운데 사회적 계급이나 국적이나 인종에 관하여 문제가 없을 것이다 — 고전 12:13, 갈 3:28, 골 3:10-11.
- D. 빌레몬서의 주제는 새사람 안에서 믿는 이들의 신분이 평등하다는 것에 대한 예증이다 — 엡 2:15, 4:24.
 1. 오네시모와 빌레몬의 사례는 새사람 안에서 모든 믿는 이들의 신분이 평등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 몬 1-2, 10-19.
 2. 신성한 출생과 신성한 생명에 의한 생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믿는 이들은 한 새사람 안에서 평등한 신분을 갖는다 — 엡 4:24, 골 3:10.